

2022년 첫 은사 집회(비대면) 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심 없이 따랐으며 아버지 사울 왕의 범죄를 막고자 온 힘을 다하되 끝까지 도리를 다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의 향, 성결의 향, 기도의 향으로 가득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관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뒤 에이즈, C형 간염 등을 치료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61호 2022년 2월 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치료와 응답 넘치다! 비대면 '은사 집회', 실시간 간증 이어져

지난 1월 21일 밤 11시, 금요일 새벽에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과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2022년 첫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롬 10:10)라는 말씀을 전한 뒤 회개 찬양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인도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복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국내외에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특별히 이날 집회 시에는 전화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간증을 접수받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이경자 집사(66세)는 은사 집회 때 찬양하던 중 굽은 허리가 펴졌으며, 임혜란 권사(55세)는 기도받은 뒤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시력이 회복돼 글씨를 또렷이 볼 수 있게 됐다. 정재희 권사

(53세)는 허리 협착증을 치료받았고, 김순화 권사(52세)는 음식을 먹으면 체한 듯 답답하고 속이 쓰린 증상이 사라졌다.

홍석조 집사(59세)는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에 금이 가 시큰거리고 움직이면 통증이 심했으나 기도받은 때 성령의 불이 임해 깨끗이 치료되었다. 또 정선

미 집사(42세)는 왼쪽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받은 뒤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푸안제 집사(41세)는 오른쪽 어깨 통증을, 주계화 집사(45세)는 온몸이 쭈시고 피곤한 증상을 치료받았다.

박분선 집사(57세)는 백신 접

종 후 왼쪽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았으나 은사 집회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왼쪽 어깨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백신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인도의 샤키 성도(25세)는 요실금을 치료받았으며, 카피타 로이 성도(32세)는 발의 심한 통증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는데 기도받은 뒤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

페루의 루피노 자우리 성도(78세)는 무릎 통증이, 몽골의 하산사나 성도(42세)는 허리 통증이 치료되었다. 지난해 12월 은사 집회 때 편도선염과 결석을 치료받은 콜롬비아의 에드윈 니뇨 성도(38세)는 이날 두통이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했다. 이 밖에도 국내외에서 은혜로운 간증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인도 'GCNTV HINDI' 시청자가 보내온 서신

"남편이 다리 절단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인도 타밀라루 주에 거주하는 살라(38세)입니다. 제 남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AS 라자'(42세)인데 2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4개월 전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가락과 발꿈치를 다쳤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점점 심해져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지요.

당뇨로 인해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다리의 감각까지 사라지고 있어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이

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 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참석해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 뒤 남편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 환부가 줄어들었고 다리에 감각도 되살아났습니다. 의사는 이제 남편의 다리를 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남편도 주님을 영접했으며 지금은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남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리며, 남편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의 선(善)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러 하시나이까”(사무엘상 19:4~5)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맏아들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위에는 한 사람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며 친구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습니다(삼하 1:26).

이것은 다윗의 선함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아름다운 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 사울 왕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던 요나단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였으나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매우 기뻐해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과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은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울 왕의 시기는 심해져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수급을 타 주던 다윗을 향해 단장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이 피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이를 본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지요. 그래서 그 후로도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하게 그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처럼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

을 지켜보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5절에 “...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러 하시나이까”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요나단의 선

1)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입장이라면 사울 왕과 다윗 중에 누구 편을 들겠는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버지요, 한 나라의 왕이니 그의 말을 거역하고 친구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불효이자 불충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 됐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사심 없이 받아들여 다윗을 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요 3:30).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자신의 명예와 영광도 가껴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잡히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멈칫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은 주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한 부서가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여 해 놓은 일을 뒤늦게 만들어진 다른 부서가 일의 효율성을 위해 그에 관한 기술과 자료,

인력 등을 요청한다면 그 부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협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것을 쉽게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며 내어주기를 아까워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도구로서 주의 일을 했다 하지만 사심, 곧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영예나 칭찬을 얻지 못해도 세상의 소급처럼 아무 형제 없이 녹아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설령 당장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범죄를 막고자 온 힘을 다하는 마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더욱이 애매히 다윗을 죽이려는 큰 악을 행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고자 했습니다. 한 번 말씀드려보고 안 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다고 물리치지 않았지요.

요나단이 거듭 간청하며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은 요나단도 미워하며 심히 노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살기등등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간청하였지요. 이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찌하든 더 큰 악을 행치 않도록 자신이 해를 받을지라도 거듭 간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옹호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월/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월/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8 비밀

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광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역사를 보면, 충신들은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왕이 그릇 행할 때에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은 왕이 참으로 잘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신의 안일을 위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길로 가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전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해도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셨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간과하지 않았는지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안에서의 부서나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윗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윗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내 생각이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말을 퍼트리거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이 얼마나 선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윗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갈지라도 그 허물을 거둬 말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더욱 훼방할 거리를 안겨 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말할 일이 아니다” 하고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도 선이 아닙니다. 또한 윗분이나 말하기 어려워서, 또는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묵인한다면 이 역시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일까요?

먼저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선의 지혜 속에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윗분이나 동료, 형제자매가 범죄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이는 선으로 인해 그 영혼을 얻은 것이니 하늘에도 상급이 되지요.

아고보서 5장 19-20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랑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권면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마음

선한 사람은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차라리 눈을 돌려버리고 싶고 악한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다면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악한 아버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렸고 악인과 함께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싸우다가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생사를 함께함으로 도리를 다한 것이 바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악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악함을 알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수차례 간청하는 등 최선을 다해 막았지요. 그러면서도 자녀 된 입장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아버지를 외면하거나 자녀로서의 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심 없이 받아들여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아버지 사울 왕이 범죄하지 않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신속히 온전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획
특
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성전 건축은 하늘나라 상급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단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해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관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처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고전 3:16).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향, 성결의 향, 기도의 향으로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주신 대성전 건축의 비전

다윗 왕도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공의

에 비추어 얼마나 합당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성결을 이룬 만민의 성도들을 통해 지어진 대성전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성전 건축의 초석으로 삼고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대성전은 영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육의 공간에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인류 역사상 최대, 최고의 성전이지요. 24시간 성령의 불길이가 활활 타오르고 영적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생명력이 약동하며 열방과 열왕이 하나님을 사모해 나오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인간 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경작하시는 까닭은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경작 마무리 시점에 성령의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혼이 참된 자녀로 나오게 되고 그들의 손으로 대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성전이 건축된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참된 자녀들을 얻으셨다는 증거이며, 대성전을 보시며 경작의 세월 동안 인내하고 애통하신 것에 대해 위로와 큰 기쁨을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공의

에 맞추어 합당하게 이루십니다. 대성전 건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의의 조건은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도, 정작 대성전을 지을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대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구약시대에는 외적인 행함의 성결과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 성령시대인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육의 속성들을 배어냄으로 합당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지요(엡 2:22).

여리고 성을 쉽게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 성 전투에서 참패한 것은 아간이라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기쁨이 되고,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합당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룸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앞서 인도하는 리더의 말에 따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순종해 나가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 목표를 향해 마음을 같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영의 흐름에서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다같이 그 성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오직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 뜨겁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집을 세놓고 임대료를 받아 근근이 생활해 왔는데, 죄로 가득한 생활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무엇보다 에이즈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 거의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 점점 우울증에 빠졌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면 세입자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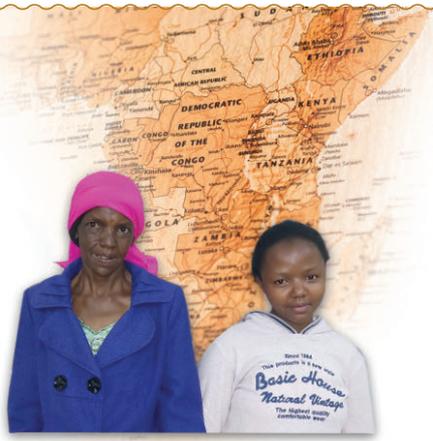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딸이 에이즈에 감염돼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에이즈 치료를 위해 어린 딸과 함께 약을 먹으며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통, 오한, 현기증, 위궤양 등 통증과 증상은 더 심해졌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더욱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지요.



2019년 3월, 이웃 엘리자베스 성도의 전도로 저는 딸(19세, 안 완부이)과 함께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정명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던 중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은 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큰 은혜의 체험을 했지요.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고 무례히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마음이 변화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 기도받으면 에이즈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에이즈를 치료받았습니다!”

롯데 성도 (52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2021년 초, 저는 딸과 함께 에이즈를 치료받자 정명호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그 뒤 저와 딸은 체중이 늘었고 두통, 오

한, 현기증, 위궤양 등 에이즈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몸의 모든 통증이 싹 사라졌지요.

다리 통증으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야 했던 제가 혼자서도 잘 걷게 되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 상처 난 발이 아물지 않아 신발을 신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상처도 다 아물어 신발도 신을 수 있지요. 더욱이 감사한 일은 딸이 잃었던 기억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1월,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21주년 행사를 앞두고 저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결심한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셨으며 재정의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열매입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과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명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셔서 한이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에이즈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C형 간염이 치료되고 오른쪽 광대뼈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졌어요!”

허정옥 권사 (51세, 중국 1교구)

저는 남편과 함께 피부 삼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오른쪽에 힘을 주어 마사지를 하다 보니 몸의 오른쪽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어느 때부터인가 오른쪽 광대뼈와 고관절이 항상 아팠습니다.

그러던 2021년 9월 13일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몸속에서 찬 기운이 빠져나간 뒤 오른쪽 광대뼈의 통증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오른쪽 고관절은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걸을 때나 앉을 때에 힘들고 아팠습니다.

12월 10일 은사 집회 때에도 오른쪽 고관절에 통증

이 있어서 딱딱한 도구로 고관절 부위를 누르면서 설교를 들어야 했지요. 그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은 뒤 자고 일어났는데, 고관절 통증이 싹 사라진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12월 6일에는 중국 대교구 일꾼들이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을 뵈었는데 이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잠시 어깨에 권능의 손수건을 얹어 주셨는데 C형 간염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7일,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C형 간염 치료 흔적만 보이고 아무런 이상 소견

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할렐루야!

1996년 저희 부부가 교회에 다니기 전 하나님, 주님을 모를 때에 저는 자궁 외 임신으로 생사를 오갔습니다. 급기야 의사는 남편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고 남편은 “하나님,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울부짖었지요. 그 뒤 기적적으로 살아난 저는 7년 후인 2003년에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던 중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당회장님과 만민중앙교회를 사모해 무작정 한국에 오게 됐지요.

그도록 사모하던 만민중앙교회의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얻게 된 생명이었기에 저는 교구 구역장을 거쳐 조장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으며, 올해는 지역장 사명을 받아 충성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p>주말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C-6를 통해 화상예배로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불성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상정동 43-15 매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1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1353-918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985-3898, 010-94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언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민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정평길 13 2층 ☎010-8903-7289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1853-0675, 010-3637-0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함절길 30 ☎0631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1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읍신면 가락길 71 ☎0431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동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1845-0617, 010-2447-9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1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1863-9857, 010-5611-7254 ● 울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